

“기도의 지팡이 성령의 전신갑주”

News Letter

S A R A N G C H U R C H

발행인 | 오정현
기획 | 특새 TFT
발행처 |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TODAY'S PRAYER



생명과 치유를 위한 부르짖음

01

우리의 심장을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바치게 하사,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일평생 되게 하옵소서.

02

사랑의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만조가 밀려와 두려움과 죄의 사슬에서 두동살 떠오르게 하옵소서.

03

원산회개운동, 평양대부흥운동의 뜨거운 회개운동이 한국 교회에 불일듯 일어나, 피흘림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사, 우리 민족이 정결하고 거룩한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조국이며 안심하라
- 김용기 장로

()이며 안심하라
- 사랑의교회 성도

특새출석표 >> 기도명언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모략

근자에 언론과 전화인터뷰를 했는데 왜 과거에 교회를 미워했는지, 혹시 어릴 때 상처가 있었는지 기자가 물었다.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나만 교회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늘 교회를 미워해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한국교회를 미워했다. 내가 교회를 미워했던 마음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느꼈다. 절망에 빠지고 포기해져야 하는데 교회만 가면 뜨거워진다. 예수님이 부활한 파위가 두렵다. 그러니 미운 것이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는가?

선교사들은 조선총독부에게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지금은 식민지시대가 아닌데도 교회가 세운

프자마자 일어날 틈도 없이 침대에 누워 엄청난 소리로 방언기도를 했다. 우리 부부는 산스크립터어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단어를 발음대로 적는 습관이 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아람어였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영원하시다. 처음에는 종교문제는 알아서라고 했던 아내는 결국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와 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절망해도 하나님은 결코 절망하지 않으신다. 유럽이 다 쓰러지고 미국이 제 정신 아닌데, 우리는 변화되어 여기에 모여 있다. 우리는 서구에 복음의 빛을 쬐는데 우리가 무너지면 구속사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평양대부흥 운동 때에는 말씀을 제대로 몰랐는데도 사경회를 하고 회개를 하



photo by SRC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다. 나를 도와 이 일을 함께 한 사람이 목사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도록 당당히 요구했는데, 오늘날 자유주의 시대에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나는 도망치려 한 자였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면서 도망치려 했다. 한국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두려웠다.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았다. 매일 낙망하며 다 죽었다고 집 앞의 바닷가에 나가 기도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내가 안 바뀌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예수님께 미쳐있으니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아내가 걱정할 때, 아내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내는 경희 한의대 다닐 때부터 불교에 깊이 들어가서 영양실조에 빠질 때까지 정통으로 불교 수행을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웬만한 평신도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대이므로, 지금의 부흥은 질적으로 20세기 초와는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회복되었다.

나는 지금 전국을 뛰어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다. 왜 저러나? 혹자들은 이해를 못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답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분만이 살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다. 특새가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할 것임을 믿는다. 그 엄혹한 시절,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모진 돌팔매를 다 맞았다. 그 영광의 역사가 타올라 북녘까지 밝히길 원한다. 핵의 불길이나 나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한다. 기도 와 찬양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게 되길 꿈꾼다. 이곳의 성령의 불길이 복음을 전해 주고 사그라지고 있는 서방을 다시 태우길 원한다.

特 錄

제15차 가을 특별새벽부흥회 특새 어록, 이것만 기억해도 연말 신앙 안전 순항



1. 첫째 날 /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오정현 담임목사)

- 성령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우선 소원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가 되어야 한다.
-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보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담을 때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된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뚜껑을 열어 채우고 충만해질 수 있다. ‘아멘’하는 순간 질그릇이 열린다. 닫히면 은혜 받지 못한다. 기도만이 영적 그릇의 뚜껑을 연다.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자. 뚜껑을 열자. 그분이 채우실 것이다.



2. 둘째 날 / “절대 절망 앞에서” (조성환 목사)

- 모세의 철저히 망가짐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절대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전적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한 사람이 필요했다.
- 영원히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서면서, 모세는 전능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다. 광야에서 장인이자 모시는 것이 스스로 한계 지수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한계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절대 절망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는 삶이 아니라 오직 꺼지지 않는 주님의 불 앞에서 서는 인생 되길 축복한다.



3. 셋째 날 / “예수 안에 거하면” (권성수 목사)

- 성령 충만에는 가람비 충만과 소낙비 충만이 있다. 가람비 충만은 인격과 열매로 나타난다. 비상 충만은 소낙비 충만이다. 스스로 체감할 수 있고 옆 사람도 알게 되는 충만이다.
- 어떻게 하면 성령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생명의 수액이 올라온다. 수액이 올라오면 반드시 심령 속에 변화가 올라온다.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올라오면,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 수액이 밖으로 나온 것이 열매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고 분출한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한마디로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4. 넷째 날 / “예수 생명 흘러야” (권성수 목사)

- 예수의 생수가 흘러갈 때 생명의 치유가 이뤄진다. 예수의 생수가 마음으로 흘러가면 마음이, 가정으로 흘러가면 가정이, 직장으로 흘러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고, 사해 같은 세계의 죽은 지역으로 흘러가면 그 지역이 살아난다. 생수는 흘러가야 한다. 진펄이, 개펄이 되지 말고 생수의 대하가 되어야 한다.
-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6:9) 여호와와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라.
-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데 현실은 죽음일 때, 그 때에 믿음의 발동이 걸려야 한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주신다.



5. 다섯째 날 / “성령 충만을 통한 순교적 신앙” (이정훈 교수)

- 예수님은 진리다. 타협이 안 된다. “예수님에게 어떤 변형을 가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할 때, 우리는 죽는 사람이다.
- 우리 신앙인은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한다.
- 주의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할 때 이 심장을 주님 손에 바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자. 이 뜨거운 열기로 한반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전 세계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뜨겁게 기도하자.

D-1 대각성전도집회

“이것은 영적전투다!”

15차 가을 특별새벽부흥회 사랑의교회 특새 참여 성도들이 밝히는,

“내가 입어야 할 성령의 전신갑주”

특새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은혜가 넘치고 새 힘이 솟는 시간이었다.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이제 그분이 주신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 확신과 각오를 다졌다는 기쁨의 간증들이 쏟아져나왔다.

특새 뉴스레터 팀은, 에베소서 6장 11절~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러 영적 장비들 중에서도 이번 특새를 통해 특히 어떤 장비를 갖추게 되었는지 또는 그 중에서 무엇을 더욱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지 물었다. 여러 성도들의 확신과 기도를 공유하고 중보하며 특새에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여 영적 자만이나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특새뉴스레터 기획팀)

“성령의 전신갑주를 영적 장비로 무장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무장된 주님의 군사로서 나는 나의 입술로 날마다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삶을 통해 경험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매일 매일 고백할 것이다.”

- 이창재집사(남사역5반)



1. 투구

“삶에서 내면의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매번 충돌하게 됩니다. 그럴기에 매 순간 영혼의 구원과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옛 성품을 잊고 돌아가지 않도록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주집사(여사역3반)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날 보호할 수 없음을 이번 특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교묘한 방법으로 내 생각에 파고들어오는 사단의 속삭임을 무너지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과 사고를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며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소서.”

임이랑교사(디모데중등부)



6. 평안과 복음의 신

“수능날이 바로 눈앞이라 긴장된 마음을 특새를 통해 떨치고 싶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시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잠이 부족한 고3이지만 특새를 통해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수능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최유준학생(고3.수험생부)

“강한 생명력을 지닌 복음의 강수가 저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녀와 지인들에게 담대히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당당히 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영경집사(전도폭발훈련)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로 평안의 복음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실천하고 영적 불모지에서 구원받을 한 영혼을 찾을 것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 하겠습니다.”

남숙영순장(서초10 다락방)



1. 투구
2. 의의 호심경
3. 진리의 허리띠
4. 믿음의 방패
5. 성령의 검
6. 평안과 복음의 신



2. 의의 호심경

“그동안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내면의 치열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내 속에 의가 없음을 알기에 심자가를 통해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내시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되기 원합니다.”
김진경집사(내방서래)

“주님, 거짓 의와 자랑이 넘치는 영적 전쟁에서 내 영혼의 심장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소서.”
추호정집사(미도3)



3. 진리의 허리띠

“이번 특새를 통해 성령 체험을 뛰어 넘어 성령 충만하여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허리에 묶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깨어 있음으로써 영적 무장을 유지하여 우리를 늘 위협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전희선순장(서초민음3남)

“저의 간절한 기도제목은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세대계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특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담임목사님 말씀대로 성도의 최우선의 기도제목은 성령충만이라는 말씀에 따라 부모인 저희가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요14:17)을 늘 사모하며 성령충만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은미집사(청소년부모훈련)

“다니엘 중등부에서 교사로 헌신한지 9년째, 점점 더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초라한 지팡이 일지라도 겸손히 그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는 믿음의 방패를 얻게 되었습니다.”
배주은교사(다니엘중등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어떠한 유혹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윤현주집사(서초유원)

“이번 특새를 통해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 더욱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인 나의 몸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 믿음의 최강 방패인 큐티와 기도를 좀더 잘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정현학생(다윗중등부1)

“매일 새벽 분당 안은 성령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순수한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의 격식을 모두 내려놓은 목사님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붙들어 주는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희숙집사(여제자2반)

4. 믿음의 방패



“이번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 더욱 거하고 싶어 특새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할때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 죄를 찢어 없애 주시는 성령님의 검을 느낍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제 삶에 셋별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진성도(부평1)

“제가 이번 특새를 통해 얻게 된 영적 장비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실천 못했는데 앞으로는 말씀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예경학생(초동부4)

“일터와 가정의 선교사로서, 제자 훈련을 통해 받은 값진 은혜의 보화를 지체들에게 흘러 보내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번 특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기독교에 대한 편견으로 굳은 살이 배긴 믿지 않는 지체의 마음을 관통하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복음이 전해 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희용집사(남제자4반)

“나는 풀무로 달구고 때려 만들어진 서술 퍼래진 성령의 검을 장착하여 담대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고혜정성도(용산여직장10)

“요즘 하나님 나라 위해 달려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겪게 되어 너무 낙심되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 앉아 있었지만 특새에 나가며 말씀을 통해 이 싸움은 오직 주님 주신 ‘성령의 검’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성령의 검삼아 돌파하겠습니다!”
김유진자매(할렐루야 찬양대)

“성령충만 하지 않으면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가 뚜껑을 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전쟁터인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홍성근교사(다미팀)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과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 이 끊임없는 전투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이번 특새가 성령의 강한 임재로 무더진 검이 시퍼렇게 날 선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용사로 영적 재무장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상훈집사(안산남)

“관심과 시선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소한 고민과 염려들로 가득 차 있던 내가, 특새 첫날에 주님이 낸 나의 질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설교를 들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격이 바뀌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강한 도전을 받았다. 성령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 세상 고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허재영집사(내방하늘7)



5. 성령의 검

특새 총결산

제15차 가을특별새벽부흥회 총결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특새 6일 간 안아주심의 본당은 서둘러 만석되고 부속실들로 성도들을 안내하기에 바빴던 특새, 매일 특새 뉴스레터가 동나 평년보다 1천 부 이상씩을 더 인쇄해야 했던 특새, 수요일 피로증후군과 목요일 졸음신드롬을 완전 극복한 한계초월 특새, 매일 중보기도 카드가 기도함 수북히 답지한 기도특새.

3무 특새:

- 안전사고 (단 한 건의 교통 및 낙상 사고도 없었음),
- 지각사태 (새벽 3시10분이면 지하6,7층 주차장 상시 만차)
- 본당공석 (6천 석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안아주심의 본당, 새벽 4시 이전에 만석)

3풍 특새:

- 말씀 풍성 (토비새부터 예열된 말씀지수로 특새 내내 특급 말씀),
- 찬양 풍족 (특새를 빛낸, 특새를 위한 은혜 찬송들 올해도 쏟아짐),
- 기도 열풍 (후집회를 넘겨 7시 이후까지도 뜨겁게 기도한 성도들)



공지

1. 기도 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생명의 구원으로 결실하게 하옵소서!”입니다.

2. 강단 초대

각 부서 찬양팀원

3. 강사 소개

오정현 담임목사 <내 영혼의 풀 콘서트 : "성령의 전신갑주 집회(Armor of the Holy Spirit Revival Rally)">

4. 수문 앞 광장 기쁨의 잔치 / 특새 개근 선물

오늘 집회 후에 사랑글로벌 광장에서 1만 그릇의 팔죽을 준비했습니다. 받은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신 성도님은 남·북측 1층 로비에서 특새 출석부를 보여주시고 개근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특새 개근 동판(가정당 1개), 주일학교 (무릎 담요)

5. 700/7000 기도용사 모집

특새의 은혜와 영성이 일새와 토비새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700'(일새) / '7000'(토비새) 기도의 용사로 헌신하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중보기도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주시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장소: 11/12(주일) 오후 2:30-5:00,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 메시지: 김장환 목사, 오정현 목사, 이영훈 목사

- 참여 안내: 차가운 날씨를 감안하여 햇볕이 잘 드는 운동장 2층에 사랑의교회 및 목양팀별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모자와 선글라스 지참이 필요합니다.

7. 마제스타시티(롯데마트) 주차 안내

오늘 토요일 마제스타시티에 무료 주차하시려면, 반드시 차량번호를 남측1층 '교통봉사부 접수처'에 입력하셔야 합니다(9시 이후 유료). 주차장 입·출구에서 받으신 '차량번호 접수 안내지'를 '접수 등록함'에 넣으셔도 무료이용 가능합니다.

8. 특새 돌발 퀴즈 시상

정답과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성도님 다섯 분 [배현지(331번), 구성모(333번), 이성규(338), 김완숙(351번), 박현진(357번)]께 담임목사 추천도서 “조이 도우슨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남측1층 안내데스크(02-3495-1040)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9. “생명과 치유”의 은혜 게시판 활용

“생명과 치유”의 은혜 게시판에 이번 특새 기간 부여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나눌수록, 푸른 감람나무 자라난다!”

700 / 7000 기도용사 지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서 전심으로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로 부르십니다.

700기도선봉대는 매일새벽예배와 매주기도모임(매주 화요일 새벽5시50분, 사랑아트홀)에,

7000기도용사는 매주 토비새에 헌신합니다.

이름 :

(남, 여)

연락처(휴대폰) :

직 분 :

□ 700기도선봉대(

)

□ 7000기도용사(

)

□ 헌신기간: 이번 가을 특새 ~ 내년 봄 특새

- 본 카드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700 기도용사와 관련된 연락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개인 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 [] -